

2010

12

삼과 생명 나누기

12월이 그 아름다운 이야기
생명나눔 그 아름다운 이야기





회향하는 마음



중생에게 회향하는 마음으로 베풀되
나를 위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따라 보시하되
아끼거나 탐내는 마음이 없어
자기가 지은 공덕을 이웃에게 돌린다.
그런 보시가 가장 훌륭해
모든 부처가 칭찬하나니
살아서 그 복을 얻고
죽어서 천상의 복을 누린다.

《증일 아함경》중에서

삶과 생명 나누기

생명나눔 그 아름다운 이야기

12 December

www.lisa.or.kr | 154호



표지그림 '새생명-매화' 예당 한소윤

생명나눔의 편지 02

나와 가족에게 회향하는 12월 되길 · 일면 스님

생명 칼럼 04

갑상선암 ② · 최한석

생명나눔 2010 06

생명나눔은 더불어 사는 기쁨입니다

생명나눔 이야기 10

제 작은 돈이 힘든 이에게 도움 되길 · 최대순

생명나눔 이야기 12

장기기증희망안내소의 하루

BBS '거룩한 만남' _ 환자사연 및 지원금 전달 17

생명나눔소식 18

장기등 기증

생명나눔 본부 · 지역소식

수지보고 / 후원자 명단

12월 환자돕기 _ 곽희자 33

2010.12

나와 가족에게 회향하는 12월 되길

“한 해의 마지막, 참 나를 돌아보고
나와 가족에게 회향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길”



이사장 일 면 스님

경인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혹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입재식이니 회향식이니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입재는 선근공덕을 짓기 위해 어떤 행위를 시작한다는 말이고, 회향은 그 행위를 마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회향은 단순히 마친다는 뜻이기보다는, 자신이 닦고 지은 공덕을 자기와 남에게 돌린다는 의미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1년을 두고 본다면, 봄은 입재이고 겨울은 회향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지금 ‘회향의 계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위할 뿐 아니라 남을 위하여 불도를 닦는다’는 의미의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은 자기 존재를 잊으며 살기 쉽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망각한 채 물질만을 좇는 나날을 보내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 사회의 현상을 살펴보면 핵가족화,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족붕괴, 그리고 점점 높아가고 있는 자살 인구입니다. 특히 자살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는 일도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확실히 알아야 ‘자기회향’도 가능합니다. ‘자기회향’이

되어야 가족으로의 회향도 가능해 집니다. 이것은 불교에서뿐 아니라 유학의 대표적 경전인 《대학》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학》의 〈팔조목〉 중 네 번째가 바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신(修身)’. 자식은 자식으로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 수신(修身)이 되면 자연적으로 제가(齊家) 즉 화목한 가정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수신(修身)으로 제가(齊家)를 이루게 되면, 나아가 치국(治國)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기회향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회향이 되지 않고서는 가족회향도 할 수 없습니다. 가족회향이 잘 되어야 중생구제라는 대승불교의 궁극적 목적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덕이 있어야 타인에게 돌릴 공덕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올 12월에는 자신의 공덕을 자기에게 돌리고 가족에게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생각을 했다면 자신의 장점을 찾고, 지난 한 해 동안 잘한 일을 곱씹어보며 화해하고 용서하며 공덕을 자기에게 돌려봅시다.

자신의 참 존재를 찾는 일에 등한시켰다면 따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존재를 참구해 봅시다. 또 가족에게 소홀히 한 일이 있다면 이제라도 가족을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한 해의 마지막, 참나를 돌아보고 나와 가족에게 회향하는 것으로 새해를 맞이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갑상선암 ② 갑상선항진증 진단과 치료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최한석 교수



갑상선기능항진증은 갑상선에서 갑상선호르몬이 과잉 생산되고 분비되어 신체의 대사가 항진되어 나타나는 질환이다. 갑상선항진증의 원인 중 대부분은 그레이브스병인데 원래 미만성 갑상선종, 갑상선기능항진증, 안구돌출증, 피부병증이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안구돌출증과 피부병증이 없는 환자들도 많아 현재는 미만성 갑상선종과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는 경우로 정의한다. 그레이브스병은 국내에서 발생 빈도가 100명 중 1-2명 정도가 될 정도로 흔한 질환으로서 자가면역성 병인에 의하여 발병되며, 90% 이상의 환자 혈청에서 갑상선자극항체가 검출된다. 갑상선의 원인으로 그레이브스병 이외에도 노년층에서 호발하며 갑상선 종양에서 갑상선호르몬을 과다하게 합성, 분비하는 중독성 선종이나 중독성 다결절성 갑상선종, 일시적인 갑상선중독증을 유발하는 여러 갑상선염, 그리고 드물지만 갑상선호르몬을 과다 복용하여 발생하는 의인성 갑상선중독증 등이 있다.

그레이브스병에 의한 전형적인 갑상선항진증은 수 주 혹은 수 개월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 충격 후에 급격히 발현되기도 한다. 갑상선항진증은 갑상선호르몬의 과다 공급에 의한 것이므로 전신 각 장기에 영향을 미쳐 그 증상이 매우 다양하다. 갑상선호르몬은 대사를 촉진하여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갑상선기능항진증에서는 피로감, 전신쇠약 및 체중감소를 보인다. 전형적인 외형은 안절부절하며 초췌한 모습이다. 비교적 말을 빠른 속도로 하며 더위를 참기 힘들어 한다. 또 식욕이 양호한데도 체중 감소가 계속되며, 전신 쇠약감 및 근력 약화를 호소한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집중을 못하며 불안해하며, 불면증이

나타나고 손발을 떤다. 여성에서 월경양이 감소되거나 없어지기도 한다. 피부는 따뜻하고 습하며 색소침착이 증가되고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모발과 손톱은 연하고 가늘어지며 잘 빠지며 부스러질 수 있다. 맥박수가 안정 시에도 1분에 90회 이상으로 증가하며 10~15%의 환자에서 심방세동이 나타난다. 위장관의 운동이 증가되어 잦은 배변과 설사가 나타나며 쉽게 공복감을 느끼게 된다. 동양인 젊은 남자에서는 주기성 마비가 나타나기도 한다. 주기성마비는 과로, 과식, 음주와 관련이 있으며, 주로 하지에 나타나고 90%이상에서 취침 중 또는 기상시에 발병하였고 대부분 저칼륨혈증이 동반되었다. 고령의 갑상선항진증 환자의 경우 대부분 근육 쇠약, 체중감소, 심방세동, 심부전 또는 협심증, 우울증, 불안감, 진전 등의 신경근육계 또는 심혈관계의 단일증상을 호소한다. 또한 맥박이 그리 빠르지 않고 오히려 차갑고 주름진 피부, 눈 징후 및 갑상선종이 없는 등 전형적인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임상적 특징과는 다른 소견이 흔히 관찰된다.

그레이브스병의 치료로 항갑상선제 등의 약물치료, 갑상선아전절제술의 수술, 그리고 방사성요오드 치료 등이 이용된다.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에서는 일차적으로 항갑상선제 치료가 선호되며 미국에서는 방사성요오드 치료가 일차적으로 선호되고 있다. 보통 항갑상선제는 12~24개월 정도 사용되며 그 이상의 기간에도 치료가 되지 않으면 수술이나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대개 40~70% 정도는 항갑상선제로 치료가 되나 이중 일부는 재발이 일어나기도 한다. 약제를 꾸준히 복용하지 않을 경우 치료 후에도 완치가 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빼먹지 말고 약제를 복용해야 한다. 수술은 이는 갑상선의 70~80%를 절제하고 나머지를 남겨 놓는 수술법이다. 수술은 비교적 젊으나 갑상선종이 매우 큰 경우, 항갑상선제 사용 후 재발하였으나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할 수 없을 때 주로 시행한다. 방사성요오드는 베타선에 의하여 갑상선 세포가 파괴되어 마치 수술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방사선 피폭은 거의 무시할 정도이므로 임신부나 수유부를 제외한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다. 방사성요오드 치료는 가장 경제적인 치료법이나 투여한 90% 이상에서 영구적인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생명나눔은 더불어 사는 기쁨입니다

2010년 경인년 한해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12월이 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떤 마음가짐과 계획으로 살아야 할지 생각해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눔실천본부도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 돌아보고,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져볼까 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2010년은 해국 스님의 장기기증 서약으로 그 첫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사인 해국 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께서 손수 작성한 장기기증 희망등록신청서를 본부에 보내주셨고, 많은 분들이 큰스님의 실천에 뒤따라 장기기증 릴레



이를 이어갔습니다.

2월에는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스님과 종무원 등 10명이 생명나눔 실천에 동참했고, 그밖에 많은 분들이 2010년 한 해 동안 생명나눔의 회원이 되어주셨습니다.

3월에는 생명나눔 회원인 익명의 노스님께서 “생명나눔을 위한 일에 써 달라”며 1억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시신기증을 한 후 내가 가진 나머지 것도 모두 생명나눔에 기증하고자 결정한 일”이었다며, 수행자로써의 아름다운 회향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4월에는 안국역 내 장기기증희망안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문화를 확산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문을 연 장기기증희망안내소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230명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와 96명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자, 36장의 현혈증을 모집해, 시민들의 장기기증 참여를 확대시켰습니다.



한편 올해는 생명나눔실천본부를 알리고 빛내줄 여러 홍보대사님들이 생명나눔과 인연을 맺어, 사회 전반적으로 장기기증을 알리는데 기여했습니다. 탤런트 송선미 씨를 시작으로 영화배우 문소리 씨, 가수 박상민 씨와 한혜진 씨가 홍보대사에 위촉됐으며, 이들 홍보대사들은 거리캠페인, 한다숨음악회, 희망걷기 등 본부의 다양한 행사에 함께 참석해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5월에는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과 구미불교대학 자비실천공덕회가 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생명나눔운동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외에도 6월 한다숨음악회, 자원봉사자 교육, 7월 장기기증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세미나, 9월 제3회 희망걷기 및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 창립식, 그리고 천도재와 생명나눔의 날까지 다양한 사업과 행사가 생명나눔의 2010년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주된 목적사업인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사업은 매월 사찰과 지하철 역사, 거리캠페인 등을 통해 2010년 9월



까지 1,600여명의 장기기증희망등록자를 모집했으며,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은 2010년 한 해 동안 3,250건을 등록했습니다. 또 환자돕기사업은 2010년 9월까지 총 46명에게 1억6천3백여만원을 전달해, 형

편이 어려운 환자들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본부 이사장인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 및 장기기증 인식전환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불교진흥원 제8회 대원상 승가부문 대상(9월 9일)과 대한불교조계종 제22회 포교대상 공로상(11월 17일)을 수상하셨습니다.

짧은 글 몇 줄로 생명나눔의 2010년을 모두 나열하기는 어렵습니



다. 하지만 올 한해도 생명나눔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그 노력의 뒤에는 항상 회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생명나눔에 동참해 주시고, 늘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정성과 관심이 헛되지 않도록 2011년에도 생명나눔을 통해 더불어 사는 기쁨과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보팀장 손범숙

ING생명의 “사랑의 보험금”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와 함께합니다.

사랑의 보험금 캠페인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금의 수익자를
(사)생명나눔실천본부로 지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선진기부문화입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매월 25,000원(나이에 따라 납입기간은 다를 수 있음)씩 ING생명의 종신보험을
통한 사랑의 보험금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보험금 캠페인에 대한 당신의 관심과 참여는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자선문화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ING 



(사)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랑의 보험금 후원 운동 절차



사랑의보험금 상담 및 가입 안내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사랑의 보험금 담당FC

조원제

C.P_010-3766-1831

E-mail : pupunana@hanafos.com

“많은 동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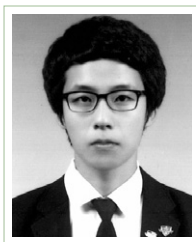
사랑의 보험가입명단(2010.10.20 현재)

강민수 기우보 김계선 김민태 김옥상 김은주 나현상 도난희 도윤수 무이스님 박경호 박미옥 박희숙 변명숙
변영옥 변호영 성윤스님 송무근 신예지 신현숙 오명근 유금숙 유상호 윤영자 이순영 이승현 이승환 이주희
이지수 이지연 이태홍 이혜숙 이홍경 임영은 전정현 정복자 정봉스님 조아라 조원제 주혜린 최기영 최선미
한정임 허정화 황정희 황화연

“사랑의 보험금 및 기타 종신보험, 변액보험에 대해 문의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 작은 돈이 힘든 이에게 도움 되길

최대순



안녕하세요. 저는 진부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최대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제가 보낸 후원금을 좋은 곳에 잘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후원금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저에게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제가 군것질과 게임비를 조금 줄이고 모은 돈으로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후원을 한다면, 제가 쓰는 1만5천원보다 몇 십배 몇 백배 큰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후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작은 돈으로 아프고 힘든 사람이 행복해 진다고 생각하는건 저의 욕심일까요?

하지만 그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덜 힘들어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작은 초라한 돈을 좋은 곳에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시지 않으면 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 문자를 보고 내가 어느 한 분에게 도움을 주고 희망을 드렸다고 생각하면, 나약한 제 자신을 바로잡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희망을 주고자 노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쓸 돈이 없다고 후원을 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제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앞으로든 꾸준히 후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후원이나 기부는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고요.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착한 일을 별로 하지 않았습시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사고란 사고는 다 쳤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학업에도 열중하며, 주말에는 절에서 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엄마가 제가 좀 더 크고, 부모님 동의서 없이도 기증할 수 있을 때 그때 엄마와 함께 하자고 하셔서 못 보냈습시다. 아직은 학생 신분이라 많은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며 살자는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요, 생명나눔”

10월 18일 생명나눔실천본부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글과 함께 동봉된 1만5천원. 군것질과 게임비를 아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며 보내온 소중한 후원금과 편지가 고등학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특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소식이 실어 함께 공감하고자 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후원으로 치료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어려운 환자들을 돕고, 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 실천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장기기증 희망안내소의 하루



매일 오전 10시 30분, 안국역 장기기증희망안내소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장기기증희망안내소에는 공부원(간호사), 원은주(임상병리사) 두 분의 선생님이 매일매일 교대로 희망안내소를 지키고 있으며, 장기기증에 대해 궁금해 하는 시민들을 맞아 상담 및 희망등록, 채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장기기증 홍보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28일 개소한 장기기증희망안내소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10년도 장기기증 및 이식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총 230명이 장기기증희망안내소를 통해 장기기증희망등록에 신청했고, 96명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했으며, 36장의 헌혈증도 모집했습니다.

장기기증희망안내소에는 하루 평균 5~6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장기기증에 대해 상담하시는 분,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시는 분, 신청서를 가져가시는 분 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Interview

연령별로는 나이든 어르신들의 방문이 좀 더 많으며, 가족과 함께 또는 연인이 함께 오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고 합니다. 커플이 오는 경우는 여성들이 좀 더 적극



적으로 장기기증이나 조혈모세포 기증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로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을 고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점점 핵가족화 되는 사회 현상 속에 끈끈한 가족의 정마저 없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 방문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는 친구, 가족과 함께 다시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기기증희망안내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고 하십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는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장기기증희망안내소를 통해 점점 더 크게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홍보팀장 손범숙

“친구같이 편한
희망안내소로 오세요”

공부원 간호사



장기기증은 나 한사람의 기증으로 끝날게 아니라, 주변의 가족, 친구들에게까지 나눔을 전파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장기기증은 처음부터 마음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신중해 졌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가까이 보고 접하는 것, 장기기증희망안내소처럼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인식변화에
막중한 임무 느껴요”

원은주 임상병리사



얼마 전 지방에서 인사동 구경을 왔다가 장기기증희망안내소에 들르신 분이 있었어요. 꼭 하고 싶었는데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못 했다고 너무 반가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이 장기기증희망안내소의 역할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여전히 장기매매 등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장기기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느리지만 서서히 변해간다는 것을 느끼며, 저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서도 막중함을 느낍니다.

조혈모세포

presentation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명단

◆ 52차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캠페인-덕성여대(9월 2일)_23명

김옥진, 황효란, 강경민, 박아영, 권예린, 심영지, 고운지, 최정화, 김연지, 방경규, 최지영, 이선규, 구혜림, 김은영, 김사라, 손서희, 김하얀, 이보람, 이가현, 최선영, 김혜진, 김솔현, 이새미

◆ 53차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캠페인-덕성여대(9월 3일)_27명

김진주, 이지영, 강경연, 양지은, 이다혜, 문지원, 조윤경, 부지영, 김지희, 이예나, 진예린, 김지은, 조남주, 조희연, 박종식, 안유정, 이고은, 강진아, 노은희, 고아름, 백사은, 송하예진, 오아람, 윤태은, 변나영, 송여진, 유희연

◆ 54차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캠페인-동국대(9월 8일)_70명

박신영, 김진주, 이양화, 송나영, 임수현, 여환식, 김우진, 김동민, 윤성렬, 박현지, 김기덕, 이정현, 강선미, 정선교, 서영진, 이정훈, 서희진, 박지수, 홍혜진, 김희은, 박진수, 고우리, 한영우, 장주환, 임명진, 김민정, 우광식, 이현인, 송치원, 안세희, 김기석, 박정인, 어정선, 고수빈, 이정은, 조형원, 서유리, 신재용, 이승진, 김지옥, 조은혜, 신재선, 황명연, 김소윤, 박유상, 이아리, 강민재, 이예지, 김지현, 오희목, 정민용, 이한성, 김아름, 박은혜, 이예연, 문지현, 김정화, 박성준, 유다은, 김지은, 이기람, 명연희, 심교훈, 박지은, 소민준, 배수일, 김은실, 구단비, 박민선, 강이수

◆ 55차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캠페인-동국대(9월 9일)_19명

윤경진, 김은정, 심유진, 조혜림, 이나라, 홍동균, 박주현, 강가애, 백주연, 김선혜, 김효진, 김강산, 김동준, 허진, 김민섭, 권범, 이승원, 황지현, 김세미

◆ 56차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캠페인-영등포(8월 30일)_9명

손유진, 이상미, 이진호, 이진인, 이민희, 조성혜, 박가을, 윤성범, 홍은석

◆ 57차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캠페인-걸기대회(9월 11일)_3명

장동민, 이현지, 김영훈

◆ 58차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캠페인-부산정보대(9월 13일)_50명

황미경, 김종욱, 임재홍, 이승우, 김유진, 김이나, 이광희, 박한우, 정현정, 윤해정, 임재환, 강종현, 김정환, 김상성, 김희랑, 정명수, 김병기, 이연주, 김승우, 한민우, 최장현, 허수중, 동새로미, 박근찬, 김수현, 민경환, 김석환, 배기원, 권재호, 최수민, 이해찬, 전성, 임성광, 김술지, 구봉근, 김민우, 정수진, 김소정, 강진아, 이정미, 윤성현, 문지영, 노동윤, 이선규, 서동학, 강성은, 김성훈, 이지영, 최하나, 황규리

◆ 59차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캠페인-부산정보대(9월 14일)_40명

박기규, 백동현, 이종열, 김승현, 염태영, 김영길, 구민철, 서정대, 정성윤, 권유진, 김준호, 김미림, 최우성, 김예지, 문유진, 이원영, 정재은, 이진석, 천중현, 김경두, 유승호, 고재철, 박희경, 조정호, 남설희, 장연경, 홍동규, 정효람, 박난이, 이민재, 현병규, 조삼수, 김은조, 최정원, 이상환, 이건영, 남지훈, 윤자원, 전정인, 강경훈



나눔은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입니다.

◆ 60차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캠페인-상암월드컵공원(9월 17일)_9명

김정빈, 강아름, 박정은, 장미소, 정소영, 장정호, 김신봉, 황가혜, 박희경

◆ 61차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캠페인-상암월드컵공원(9월 18일)_6명

이주미, 박영숙, 이연경, 이선아, 이영아, 이송희

◆ 62차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캠페인-성균관대(9월 29일)_16명

김동기, 이윤지, 최규진, 장민희, 이한민, 이수아, 강민근, 이기리, 안진주, 구윤혜, 김지원, 송현옥, 지영인, 류수인, 백자현, 전인협

◆ 63차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캠페인-성균관대(9월 30일)_12명

김봉수, 김영진, 권오환, 박 윤, 한태희, 박진호, 이상은, 신영백, 한재관, 박정원, 윤선홍, 김상희

◆ 64차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캠페인-마산대(10월 7일)_221명

원희경, 김성영, 김은비, 정예린, 진한정, 정원정, 정주향, 박소희, 신민주, 정성희, 김민지, 이우경, 김미리, 강혜란, 김소연, 김현정, 감미진, 김민지, 이원영, 김진솔, 신수빈, 이주희, 윤미선, 박혜진, 노지혜, 김민지, 김선애, 박애주, 엄사라, 고니영, 강민지, 강경화, 이다화, 손현민, 석민지, 박효정, 박나래, 구세경, 김나리, 서꽃지, 조재명, 김민희, 박보람, 김미영, 김소망, 장환준, 나하나, 박혜린, 강태경, 강윤진, 고은지, 권은희, 윤성숙, 김태희, 신송이, 오민택, 박수빈, 정수정, 김은옥, 김은수, 이규동, 임정현, 장은주, 전주영, 이하인, 김재삼, 김지희, 김다혜, 강재필, 임혜진, 임보미, 김주원, 이수경, 하희현, 임지은, 최인화, 최진주, 이우현, 도미라, 신정향, 변성화, 윤여원, 배수진, 김민우, 오지수, 김혜정, 박은경, 이태환, 신정민, 김지현, 김혜민, 박노을, 최준호, 이정우, 홍미희, 이영지, 김명진, 장고은, 윤담은, 문정수, 이상원, 이윤성, 박주희, 김경진, 김예은, 이소하, 김주희, 윤예진, 김단비, 김일화, 이다영, 박소영, 김영지, 유미나, 송경호, 정은지, 안은진, 이슬빈, 하수진, 양정금, 황영권, 정인환, 손수정, 곽동철, 박진우, 강은혜, 강정민, 김양지, 이소희, 이효실, 김다솜, 이선연, 최민경, 최민경, 김선대, 이선영, 임차경, 이복희, 김혜란, 이다솔, 이슬기, 박려주, 전보민, 국문정, 이령규, 김민지, 윤우성, 최영옥, 이진희, 신주향, 조정원, 박철안, 장충웅, 마성희, 최진호, 배진환, 신지은, 김해귀, 이상진, 곽지용, 김희정, 박병규, 이다영, 박지영, 박재완, 진현석, 정현정, 조은경, 박세원, 이창호, 장다훈, 김경우, 황성욱, 공준호, 김태성, 박강진, 강동우, 허종훈, 안치홍, 김강익, 최은경, 김수빈, 정두훈, 김현정, 배영화, 박은옥, 최지수, 김경은, 김슬기, 강슬기, 김민선, 임주성, 서지연, 조은지, 이현인, 이옥비, 김진하, 김나연, 정미은, 최수민, 황혜진, 최원준, 김성규, 최성동, 최성재, 홍혜영, 김영선, 장유남, 남미숙, 박수민, 김선녀, 손영은, 이수연, 손영옥, 이현주, 구현정, 노현지, 허은영, 손주영, 공혜은, 최나혜

◆ 65차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캠페인-마산대(10월 8일)_7명

이희진, 김민선, 오윤진, 김미영, 조수연, 김혜빈, 이명진

◆ 66~68차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캠페인-본단체(10월 15일~10월 17일)_8명

조지현, 김미영, 이혜인, 김선웅, 홍혜련, 김지혜, 이아름, 김수경



◆ 69차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캠페인-영남대(10월 25일) 84명

백색이, 오하나, 김영식, 손정완, 박상영, 최불미, 김기영, 권순현, 김도형, 백경화, 황해진, 손혜지, 최대규, 전민주, 김지은, 김현규, 하홍준, 구슬희, 방세희, 이동환, 강기수, 송지연, 권정근, 정수정, 이슬름, 강현호, 김형현, 심영철, 안초롱, 유호정, 유자현, 이진아, 윤석진, 이현주, 강소라, 조아론, 이인재, 전대권, 장은진, 이혜민, 김인하, 김주훈, 김대훈, 김민정, 허준혁, 김지영, 여유라, 박지화, 이효숙, 한선규, 강해성, 김용진, 김연정, 서주희, 김신희, 손영신, 장중희, 노윤진, 김지은, 신선희, 지수인, 신민정, 우정임, 도소희, 이지형, 지보람, 김지은, 노소영, 서혜인, 전보라, 이수빈, 박애경, 장윤영, 유다희, 남남규, 이미영, 전소연, 강양지, 정준경, 김래은, 백종화, 서지환, 김규섭, 이성원

◆ 70차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캠페인-영남대(10월 26일) 74명

차현철, 조희진, 박보미, 박미정, 이광섭, 김문수, 윤세훈, 이지형, 남지연, 안민환, 최영철, 박해리, 이지영, 김영규, 신아선, 예수아, 황진성, 장가현, 정소연, 우상규, 전해지, 박미현, 채정아, 김경미, 이영미, 노영환, 김지훈, 김지환, 차민경, 강민수, 김지을, 신소현, 윤현수, 박현태, 이병훈, 배인숙, 김지환, 이슬기, 김태우, 김재열, 도익환, 김주현, 이민지, 김지현, 송호진, 김경진, 윤창미, 박주현, 김락민, 김희식, 윤지영, 이슬기, 김형수, 박정대, 손순철, 우세현, 구영현, 이설기, 현미진, 정혜원, 황해정, 정지윤, 박소윤, 이정덕, 이성호, 김용규, 장윤경, 허영신, 김슬기, 김혜림, 노민향, 여주희, 조가원, 정일화

◆ 71차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캠페인-창신대(10월 11일) 161명

안다빈, 박지희, 박류라, 이현철, 김지영, 김윤지, 모석진, 서유리, 서진아, 노성지, 이유나, 전윤희, 한해경, 차선미, 김아영, 이미경, 윤정호, 민병훈, 하도윤, 박혜민, 박수민, 장혜선, 김대원, 김성진, 김소미, 박경림, 이혜리, 윤승희, 박영철, 이석호, 강보라, 정혜진, 정희수, 박아영, 명민지, 문경민, 김희상, 황민희, 이한나, 표세한, 강병주, 박광진, 백토성, 라수하, 배혜인, 박승천, 안은하, 김지혜, 신민영, 노희정, 안은진, 이지혜, 장세현, 홍지호, 정휘영, 김태훈, 강해성, 남영임, 김주현, 성은지, 김지현, 조민희, 이연주, 최지수, 손아람, 추태욱, 김지수, 김보은, 왕유진, 허성환, 최우영, 이재민, 김진림, 진은경, 강성림, 문진화, 신창익, 김봉균, 김현정, 이혜진, 이진아, 배도현, 박영철, 김슬기, 박해리, 이하니, 이창기, 김수영, 김세원, 박지현, 박유경, 김지수, 이미옥, 강주희, 류정임, 공기련, 박지희, 남영애, 강승희, 김미나, 강혜민, 남정은, 김유리, 염애련, 조현정, 정수진, 임민지, 진언희, 송영주, 김선희, 우창신, 김경애, 이지경, 심민주, 박혜진, 이미선, 이소미, 윤경미, 강아름, 박시영, 권아영, 권안나, 김강희, 조하나, 손소영, 문계은, 서보경, 박혜정, 박경혜, 김영주, 강혜민, 박인혜, 박지수, 김가영, 서지영, 김미경, 하지는, 김지아, 강혜진, 김민경, 손혜원, 박현경, 서현영, 안윤정, 이미영, 서선희, 박혜진, 이소영, 박영수, 이상미, 진혜정, 최한나, 손종정, 이도은, 박은주, 김태민, 김동규, 김경아, 박지영, 박정화, 박지혜

◆ 72차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캠페인-경남대(10월 12일) 45명

백준호, 안성호, 안영진, 임영선, 이정은, 이주란, 한상훈, 안자영, 황원경, 김다윤, 황선옥, 유종훈, 조영근, 김경민, 조기훈, 권현민, 이슬지, 백인식, 황인식, 민유미, 최은지, 허보람, 이선경, 김지혜, 주미경, 이유진, 김남형, 전선영, 김금숙, 안 일, 김지성, 허경관, 김창권, 이혜현, 최슬임, 최도영, 김경은, 심소영, 김성훈, 정보훈, 노찬혁, 김수인, 문소리, 박경우, 장원희

◆ 73차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캠페인-17사단(10월 31일) 55명

김종원, 조선미, 이아름, 박지혜, 변효진, 허진, 김해경, 이민지, 이다영, 권선형, 배차원, 고준영, 엄동욱, 이상원, 이다현, 김중범, 유경은, 노안정, 이현주, 변혜경, 이은광, 정지연, 정유진, 한영규, 변석준, 김진수, 홍윤찬, 이병훈, 명가빈, 임혜영, 최정경, 김은지, 조경량, 강지연, 이동현, 양선영, 이은주, 허인수, 박병진, 이민영, 박혜진, 김주용, 김은애, 최원영, 한은주, 김지연, 정자영, 고견, 이하나, 하미지, 안송이, 김슬기, 서호성, 김혜인, 류현정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만남’ 10월 환자 지원금 전달

조희정(여/47세/외상성 경막밑 출혈)_760만원 지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1월 12일(금),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조희정 환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거룩한 만남 진행자인 지현스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런 사고와 수술 후, 의식도 없이 누워만 계셨지만 지금은 의식을 되찾고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달식에 참석하신 언니

조정희님은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모두의 건강을 기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인년 한 해 동안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을 청취해 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거룩한 만남’ 11월 환자 ▶ 11월 26일 BBS ‘거룩한 만남’ 방송

김성국_남/25세/뇌손상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본인의 삶을 잘 꾸려나가던 건실한 청년 김성국님은 지난 10월 어느 날,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발생해 몸과 얼굴 부위에 심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인지장애와 행동장애까지 발생해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입원기간 동안 1천만원이 넘는 치료비가 발생했고, 갑상선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여동생이 오빠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아들의 간병에 열성인 어머니는 만성신부전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작년 5월에 성국 씨가 신장기증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큰 버팀목이던 아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리라는 믿음으로 매순간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에 소개돼 모금활동이 이뤄졌습니다.

장기등기증

presentation

◎ 신규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자 (10월 16일~11월 15일)

김기문, 조갑성, 김경호, 주정자, 고주길, 이경애, 박현진, 김하나, 김예슬, 박진희, 배종숙, 김태영, 홍승표, 정경자, 서애자, 김민수, 김유진, 홍성인, 김원희, 김대선, 김혜은, 장지훈, 이도형, 남상기, 차옥자, 이옥자, 오양림, 이동호, 김용태, 이상용, 김성수, 이금주, 권영승, 양경미, 이종현, 박신용, 김상희, 황정분, 한명일, 김영애, 이영숙, 강정화, 문경자, 이재은, 양동민, 마상섭, 황재훈, 김남경, 조미례, 김혜정, 서유진, 민혜란, 박하균, 민현기, 최우희, 정길영, 최창근, 이봉선, 안효신, 최근실, 정상훈, 한미정, 김태복, 이희숙, 이경출, 정설화, 장준혁, 김원대, 김경태, 박영신, 이슬비, 강지원, 주미경, 김은애, 이영은, 박남호, 김윤기, 윤호정, 강진우, 이수혁, 김수원, 박대성, 박상수, 김남정, 최희남, 성기숙, 오영자, 김복순, 김주은, 서경애, 이상호, 구상희, 김정인, 석상길, 김 혁, 이재백, 신영자, 박은미, 서주희, 박현정, 유희정, 송문제, 조평애, 정안숙, 김옥연, 김성길, 신재덕, 문해원, 김미연, 박인규, 전홍식, 안지훈, 허성윤, 박상진, 이주연, 이점옥, 김정현, 지윤진, 공우선, 홍영표, 허남길, 배공영, 정용숙, 최진혁, 최효부, 이영숙, 이송미, 유우선, 장지영, 김명준, 임수진, 이주란, 강태규, 송수남, 이창미, 문해정, 나현승, 문수아, 신 열, 오정례, 이도연, 오미숙, 송은혜, 김훈민, 김선주, 이동우, 심적스님, 만상스님, 해조스님, 법상스님

• 광주전남지역본부 윤봉호, 류동훈, 염성환, 신연식, 윤춘석, 김은아, 고병주, 정래선, 홍신도, 윤정남

• 부산지역본부 김숙란, 변상근, 조경애, 김미란, 황서영, 김형규, 정영미, 박홍수, 임찬란, 장수만, 임동예, 성영경, 양정아, 이옥희, 권현석, 정우정, 지정옥, 이미라, 조경애, 김상근, 배권한, 박창열, 정양순, 윤희수, 문진훈, 김균호, 김옥지, 신영숙, 홍옥례, 강미순

• 대구지역본부 남궁진선, 예승아, 장가현, 안경연, 황혜정, 장성팔, 서덕수

• 제주도지역본부 김민미, 이영인, 한영순, 이영유

총 201 명

헌혈증 기증

정영국, 이종선, 박성원, 채성진, 유태근, 남승춘, 박상호 각1매, 공부원3매, 이창호2매, 이승용4매, 서정호5매, 이인수5매, 남천우11매

총 37 매

“장기기증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생명나눔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헌혈증 지원

• 김병조(남, 61세, 골수이형성성후군) - 50매 지원

지난 10월에 골수이형성성후군을 진단받으시고, 타인공여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으셔야 하지만 국내에선 기증자가 없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공여자를 찾아보고 싶으나 고액의 비용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량의 수혈을 받고 계셔 헌혈증을 지원해드렸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이연숙(여, 48세,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 50매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자반증을 진단받으시고, 2010년 2월에 비장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혈소판 감소가 지속되어 수혈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다량의 수혈에 도움이 되도록 헌혈증을 지원해드렸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장기등 기증

● 故 추상수 - 시신기증


고인은 2008년에 본부를 통해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하시고, 지난해 직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에 임종하셨습니다. 유가족은 고인의 생전 뜻대로 기증의사를 밝히셨고, 10월 18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시신기증 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故 구영순 - 시신기증

고인은 노환과 치매로 노인전문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임종하셨습니다. 유가족은 생의 마지막에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기증을 결심하셨습니다. 고인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시신기증 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故 이승규 - 시신기증

고인은 2001년 본부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하였고, 심근경색으로 임종하셨습니다. 유가족은 고인의 뜻대로 기증을 결정하시고 본부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고인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시신기증 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자의 등록 정보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로 통합되며, 등록자가 희망하실 경우 운전면허증 사진 아래에 “ 장기기증”이라고 표시됩니다(갱신이나 재발급 시) 회원님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부로 연락(02-734-8050)을 주시거나 본부 홈페이지(www.lisa.or.kr)에서 직접 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 본부 소식 ■ ■

10월 선정환자 지원금 전달식

사 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0월 선정환자의 모금된 치료비를 박규문 환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달은 본부 후원회장인 이수덕 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박규문님은 잠시 퇴원을 한 상태로 상황을 지켜보며 심장이식을 준비할 예정이며, 전달식에는 담당 사회복지사인 연소영 선생님이 대신 참석해주셨습니다. 박규문님 가족들은 힘겨운 상황이지만 많은 후원자님들의 성원에 큰 힘을 얻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경인년 한 해 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를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명의 힘은 비록 작을지라도 열 명, 백 명의 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발걸음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 박규문(남/49세/심부전증) / '삶과 생명나눔기' 등 교계연론 모금_500만원
- 조희정(여/47세/외상성 경막밑 출혈) / BBS '거룩한 만남' 모금_760만원 지원

제29차 정기이사회 및 제27차 임시총회 개최



사 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스님) 제29차 정기이사회 및 제27차 임시총회가 11월 12일 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정기이사회는 2010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에 대한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으며, 이밖에 임기만료 이사에 대한 이사 선출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2011년도 사업예산은

2010년에 비해 37% 증액된 16억7천8백9십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2011년도 안국역 장기기증안내소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예산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2011년 사업은 △장기등 기증희망자 증대 △실기증자 저변확대 △홍보역량 강화 △업무역량의 전문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각 사업의 활성화와 전문화, 조직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어 임기 만료된 일진 스님(운문사), 이수덕 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연임을 결의했습니다.

17사단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캠페인



생 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스님)는 10월 31일 인천 부평에 위치한 육군 제17보병사단에서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군장병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총 55명이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로 등록했으며, 12명의 군장병들은 장기기증희망등록에도 동참했습니다. 군장병들의

아름다운 나눔실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사장 일면스님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 수상



생 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이 대한불교 조계종이 선정하는 제22회 포교대상에서 공로상(총무원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시상식은 1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일면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를 이끌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전환에 기여했고, 군종특별교구장으로 활동하며 군포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포교대상 최고상인 대상은 한마음선원 조실 대행스님이 수상했습니다.

웨딩드림 김현영 대표 정기후원 약정

웨딩전문 사업체인 웨딩드림 김현영 대표(사진)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정기후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김현영 대표는 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산반야회의 소개로 인연됐으며, 웨딩드림과 계약하는 1커플 당 5천원의 후원금을 매월 30일마다 본부에 기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웨딩드림은 매월 최소 30커플과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추후 지정기탁 등 후원동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 광주전남지역본부 소식 ■ ■

제2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무등산 옛길 희망걷기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스님)는 10월 24일 '제2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희망걷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400여명의 생명나눔 회원과 청소년들이 참석해, 청풍심터를 출발해 원효사까지 약 5.35km 코스의 무등산 옛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또 원효사에서는 백혈병 환자를 위한 치료비 1,000만원 전달

식과 문화공연, 경품추첨, 미르치과병원의 의료봉사, 조대아이사랑안경원의 안경교정 및 소독, 무료 차시음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환우 추모의 날 - 생명나눔환우 천도제

광주전남지역본부가 10월 25일 무등산 원효사에서 생명나눔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기증자 유족들과 생명나눔회원 약 30여명이 동참했고, 천도제 후 스님과 차담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해 주신 빛고를 동우회와 생명나눔 회원, 자원봉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세상을 떠나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주권기 팬 카페 회원들과 함께한 생명나눔 음악회



주권기 작은음악회 팬카페 회원들과 함께한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 치료비 모금 나눔음악회'가 10월 17일 문빈정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본부 홍보이사인 주권기님을 비롯한 무등예술단 가수 5명이 공연을 선보였고, 팬카페 회원들은 국수 및 파전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먹거리 판매와 사랑의 모

금을 포함해 총 3,190,090원을 모금했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조선대 병원과 함께하는 행복한 전통차 나눔

조 선대학교 병원과 함께하는 생명나눔 행복한 전통차 나눔행사가 11월 9일 진행됐습니다. 연지화 사법님과 8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300명명의 투병환우와 보호자, 의료진들에게 차 한잔의 나눔과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매달 조선대학교 병원을 방문해 환자와 환자가족들을 위로하는 전통차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혈병 어린이돕기 정기 자선음악회

광 주전남지역본부는 10월 31일 씨너스 콜롬버스 하남점 야외공연장에서 난치성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 돕기를 위한 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애음회'가 공연을 선보였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 자원봉사단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영화관 3층 로비에서는 사랑의 저금통과 홍보리플렛 각 500개를 배포하고, 헌혈은행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 부산지역본부 소식 ■

부산불교방송 7차 생명나눔 연중캠페인



부 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스님)가 생명나눔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10월 29일(금) 부산불교방송에서 생명나눔 연중캠페인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녹음에는 본회 부분부장인 목종스님께서 출연하셨으며, 매월 본회 이사님들이 돌아가며 녹음할 예정입니다. 매일 3회(07:57/10:57/16:57) 방송되며, 장기기증을 통해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과 따뜻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2회 희망세상 만들기 생명나눔 걷기대회



생 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스님)는 10월 30일 부산 온천천 시민공원에서 '제2회 희망세상 만들기 생명나눔 걷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걷기대회에는 환자와 가족, 중·고등 학생, 일반 시민과 불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며 함께 걷는 유익한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윤정희, 윤지훈 환자 치료비 전달식

생 명나눔 부산지역본부와 메트로부산이 공동 기획하여 진행하는 환자치료비 전달식이 11월 3일 본회 사무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전달식에는 9월 치료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윤정희(여/34세/화상) 환자에게 2백만원을 지원했으며, 긴급 의료비 지원환자로 선정된 윤정희 환자의 아들 윤지훈(남/3세/화상) 환아에게 1백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은 본회 신성애 이사께서 해 주셨습니다. 두 모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생명나눔 · 국제신문 공동기획 치료비 전달식



국 제신문과 부산지역본부가 공동 기획하여 진행하는 환자치료비 지원사업 전달식이 11월 3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전달식에서는 9월 환자 진금만(남/58세/뇌경색, 고혈압) 환자에게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달식은 본회 신성애 이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진금만 환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 ■ 경남지역본부 소식 ■ ■

국제라이온스협회와 장기기증 · 조혈모 등록캠페인



생 명나눔실천본부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손도수)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 지구와 함께 11월 10일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농특산물 직거리 한마당 축제에서 헌혈운동과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라이온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즐겁고 유익하게 캠페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대구지역본부 소식 ■ ■

영남대학교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캠페인

생 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본부장 박종명)는 10월 25일, 26일 영남대학교에서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영남대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60여명이 희망 등록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영남대학교에서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을 위한 연계활동을 펼쳐기로 했습니다. 동참해 주신 학생 및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제주도지역본부 소식 ■ ■

제주불교여성합창단 연주회서 생명나눔 캠페인

생 명나눔실천본부 제주도지역본부(본부장 성원스님)는 10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주불교여성합창단 제18회 정기연주회에서 생명나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제주불교여성합창단은 제주도지역본부장인 성원스님이 지도법사로 있으며, 특히 이번 연주회는 '생명나눔을 위한 특별연주회'라는 주제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수지보고

생명나눔의 따뜻한 동행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10월 수지보고를 올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사무처로 연락주십시오. (02-734-8050)



수입현황

2010년 10월 31일 현재

구 분	내 역	금 액
환자돕기 후원금	9월 소식지 _ 박규문	4,859,820
	소 계	4,859,820
특별 후원금	생명나눔의 날 _ 보문사 외 40명	19,720,000
	소 계	19,720,000
일반 후원금	후원금 _ 서영석 외 644명	35,010,693
	자비의 쌀 _ 윤광인 외 2명	135,000
	조계종 신도등록비	40,000
	소 계	35,185,693
	합 계	59,765,513



지출현황

2010년 10월 31일 현재

구 분	내 역	금 액
환자돕기 후원금	9월 소식지 _ 박기현	5,000,000
	생명나눔의 날 특별지원금 _ 윤지훈 외 12명	13,000,000
	소 계	18,000,000
목적 사업비	대외사업비	31,245,590
	사무비 _ 인건비 외	18,664,640
	운영 경비 _ 기타유지관리비	371,300
	소 계	50,281,530
	합 계	68,281,530

※ 환자돕기 후원금은 당월 모금액이 결산되어 익월에 지원됩니다.





◎ 후원공지 ◎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살천본부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저희 단체에 후원해주시신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24조에 의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 서류만 있으면 다른 가족이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후원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www.lisa.or.kr) 또는 사무처(02-734-8050)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는 12월이길 기원합니다.

■ CMS 후원자

강경숙	강경미	강기선	강다연	강대문	강명선	강명순	강명희	강무련	강문성	강미경	강민석	강민숙
강민아	강민지	강복순	강복하	강순자	강순천	강정분	강현숙	강현순	강혜미	강화자	강영혜	계희경
고기순	고남숙	고담스님	고명옥	고명자	고봉승	고순옥	고용스님	고정순	고정희	고종순	고홍택	공공스님
공무원	공승관	공옥금	곽보미	곽보선	곽수기	곽승엽	곽영록	곽은정	곽인환	관음스님	구자선	구홍이
국설화	국을경	권경향	권길자	권대옥	권란희	권 수	권양수	권중구	권진영	권태연	권해순	기민형
길상행	김갑식	김경근	김경남	김경순	김경옥	김관영	김광식	김광순	김구현	김귀중	김규성	김규진
김근성	김기덕	김기완	김기현	김길중	김나희	김남호	김대인	김덕희	김도숙	김도연	김도자	김도형
김동완	김동주	김동훈	김두현	김명선	김명숙	김명심	김무성	김무희	김문성	김문숙	김미경	김미나
김미선	김미숙	김미아	김미애	김미영	김민경	김민선	김민성	김민화	김백수	김병준	김병현	김병희
김복순	김복자	김복희	김삭순	김삼복	김상진	김상현	김석희	김선순	김선자	김선희	김성국	김성권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원	김성일	김성지	김성화	김소라	김소희	김승원	김수동	김수영	김수정
김순복	김순성	김순용	김순일	김순자	김순희	김신희	김애자	김연정	김영란	김영범	김영숙	김영순
김영신	김영자	김영태	김예숙	김옥경	김옥순	김옥연	김옥화	김옥희	김용수	김용숙	김용자	김용천
김용현	김용희	김운섭	김유창	김윤상	김은경	김은숙	김은정	김인근	김인순	김재윤	김재직	김정권
김정대	김정민	김정숙	김정순	김정열	김정옥	김정은	김정임	김정자	김정중	김정태	김진희	김창익
김창렬	김재분	김천영	김철중	김철현	김형세	김태영	김태중	김태현	김필훈	김학선	김한수	김한식
김해숙	김해영	김향옥	김향중	김현순	김현업	김현자	김현주	김형남	김혜경	김혜련	김혜숙	김혜진
김홍보	김홍필	김희서	김환연	김환일	김희수	나경숙	나상식	나양근	나재근	나정자	나현정	남궁순희
남궁훈	남기희	남동희	남상봉	남성은	남정숙	남정혜	남지수	남태근	노갑선	노길순	노성스님	농성스님
도영신	동부용	동영숙	동재스님	류승무	류인숙	류정화	류한홍	명성스님	무보스님	무비스님	문병찬	문희옥
민경남	민동수	박기중	박기희	박기국	박기남	박기범	박기형	박길에	박말레	박명신	박명옥	박명자
박명하	박명화	박명환	박미자	박민식	박민지	박병근	박병선	박상길	박상홍	박상희	박선미	박선연
박선영	박선우	박선후	박성규	박성자	박성훈	박세일	박소지	박수이	박숙현	박순이	박순정	박영득
박영수	박영애	박영자	박영태	박옥기	박옥자	박완선	박원동	박윤미	박윤하	박은선	박은숙	박은희
박인숙	박인학	박재국	박재원	박점순	박점철	박정선	박정양	박정현	박정화	박종현	박주병	박주현
박지연	박지현	박철호	박춘희	박춘순	박해숙	박해옥	박형수	박형숙	박혜리	박혜영	박혜자	박혜자
박혜진	박호용	박호순	박희정	박희주	방영미	배금선	배금순	배대휴	배영순	배영달	배원래	배영길
백광순	백명숙	백서연	백영주	백운선	백중숙	백진혜	백현주	백형식	법문스님	법혜스님	법희스님	변병찬
변호영	보경스님	보혜스님	부현철	사공관	사공지용	서동현	서동호	서보식	서보원	서승구	서영선	서용대
서이자	서주영	서희수	석경아	석오스님	석호이	선용스님	설은주	성경스님	성관스님	성기범	성도스님	성룡스님
성미나	성봉스님	성오스님	성운스님	성이용	성일스님	성진스님	성타스님	성화스님	소기호	소은희	손귀봉	손명화
손범숙	손서영	손은자	송경자	송광순	송기수	송명의	송석관	송수경	송순형	송영로	송용근	송유남

2010년 10월 1일~10월 31일

송인희	송정애	송태석	송헌선	송헌자	송헌정	송혜옥	신말남	신미지	신미지	신복희	신선미	신성희
신소자	신승옥	신승임	신연숙	신영순	신용철	신은정	신정덕	신현구	신현덕	신현수	신형욱	신혜옥
신호식	신호철	심계순	심계희	심영국	심재신	심정애	안락현	안상희	안소연	안승춘	안영숙	안지아
안정균	안정희	안중옥	안혁목	안현진	안광익	양기진	양명자	양선례	양소희	양영근	양철수	양춘임
양향숙	양형진	양화자	여경남	엄점선	여운정	여정남	연정주	연화남	오경성	오경민	오만수	오명희
오민정	오성덕	오세영	오연정	오윤애	오인숙	오재식	오종식	오진희	오현주	오혜수	우기제	우복희
우숙남	우현남	원서준	원영숙	월현남	위국호	유광화	유금숙	유미경	유봉자	유선희	유소자	유영학
유옥순	유정숙	유정자	유종희	유진돈	유탉수	윤광인	유훈남	윤나리	윤남진	윤덕호	윤보희	윤성하
윤숙희	윤용호	윤옥진	윤종희	윤주경	윤홍련	은일남	은인숙	응두남	이경남	이경란	이경숙	이경순
이경연	이경자	이경준	이경출	이경희	이광용	이군자	이규만	이규봉	이금성	이금옥	이금재	이금희
이가봉	이가희	이도현	이래복	이명수	이명숙	이명순	이명식	이명자	이명철	이명하	이문교	이문희
이미리	이미림	이미숙	이미옥	이미자	이미현	이백합	이병록	이병숙	이병준	이복래	이복례	이봉희
이상관	이상문	이상섭	이상인	이상순	이서정	이선경	이선영	이성기	이성민	이성현	이소희	이수연
이수현	이숙향	이순란	이소복	이순자	이순희	이승일	이승희	이연숙	이연우	이영미	이영순	이영아
이영준	이영창	이예순	이용택	이원희	이윤서	이은현	이이순	이인규	이인동	이임환	이재명	이재석
이재섭	이재순	이재훈	이점년	이정민	이정숙	이정애	이정옥	이정일	이정자	이정현	이정호	이정희
이종고	이종기	이종식	이종숙	이종현	이종현	이종희	이주영	이주하	이준식	이지은	이진구	이진호
이찬우	이창영	이철세	이혜자	이춘희	이춘희	이태영	이태원	이명림	이필희	이현구	이한근	이향림
이현규	이현숙	이형순	이희자	이호준	이화선	이환옥	이효주	이희선	이희자	인벽스님	일각스님	일룡스님
일수스님	일현스님	임경애	임규석	임길포	임말래	임수연	임숙희	임영지	임영진	임용순	임원일	임일진
임재영	임종수	임지은	임진혁	임재숙	임충빈	임충용	임혜영	임현정	자선스님	자현스님	장경숙	장관훈
장근숙	장사생	장석성	장영찬	장정래	장정민	장춘자	장하늘	재원스님	전경미	전국호	전금주	전덕현
전미옥	전민경	전복자	전상원	전성훈	전소야	전숙희	전순필	전연순	전영란	전영애	전영준	전은애
전우호	전태훈	전형옥	전희순	정경순	정광근	정금순	정기준	정덕스님	정두근	정류주	정영교	정문스님
정미라	정미령	정민교	정민선	정민스님	정범목	정병하	정복자	정복희	정선민	정선혜	정성태	정수현
정순점	정승자	정연수	정연이	정영숙	정영심	정영자	정예주	정용임	정운식	정원채	정위영	정윤심
정은숙	정은영	정은철	정인선	정일남	정일스님	정재순	정재훈	정종근	정종애	정진희	정창훈	정재현
정천우	정종강	정하준	정현량	정현복	정현철	정혜주	정효문	정희경	조경옥	조규식	조남선	조남숙
조남원	조덕화	조만선	조명숙	조명희	조미자	조석수	조석한	조성미	조수남	조수연	조소복	조소제
조승연	조영화	조영희	조용영	조은경	조정화	조진영	조철호	조화선	조한식	조한주	조현숙	조형순
조화재	조우스님	주공스님	주영자	주은규	주철식	주혜숙	지복순	지승근	지오스님	지정스님	지재순	지철스님
지하스님	지혜스님	지향란	진공스님	진만스님	진성스님	진윤자	진환스님	차경미	차정미	차정훈	차진숙	차현숙
채영수	천도스님	천안자	천영길	천용복	천일우	천진스님	천해숙	천현진	천임스님	최경덕	최경복	최경수
최광식	최규정	최명순	최미화	최민우	최배현	최병달	최병영	최복향	최서연	최선미	최선화	최성문
최성순	최순애	최순애	최순옥	최순우	최신옥	최영진	최영진	최영미	최영자	최영주	최창순	최용석
최유진	최유지	최은이	최은정	최은하	최인봉	최인숙	최재혁	최정남	최정미	최종석	최지은	최진옥
최형식	최희용	탁옥순	대영웅	표미자	표성자	표혜은	표혜택	하재기	하진철	한건섭	한상기	한석준
한순남	한연택	한장필	한정임	한종만	한종현	한채원	한희숙	함지연	함희영	해득스님	해관스님	해연스님
허경희	허우순	허월옥	허정순	허진중	현범스님	현성자	현수스님	현숙희	현암스님	현일환	현정희	형문스님
혜성미	혜능스님	혜명스님	혜복스님	혜민스님	혜원스님	혜일스님	혜장스님	혜정스님	호정스님	호탄스님	홍다린	홍사기
홍성미	홍성우	홍성자	홍성진	홍순혜	홍연표	홍영란	홍옥화	홍임남	홍인석	홍종혁	황경애	황대근
황덕자	황묘수	황병권	황복순	황봉노	황영옥	황영준	황옥이	황옥희	황의열	황인권	황인순	황인옥
황인창	황준구	황찬국	황충범	황기하	효천스님							



■ 신규 CMS 후원자

박신현	구명회	김동규	김영숙	김용숙	안영희	안정희	안혁목	양경미	염남순	오동선	원법연희	윤기호
이미옥	이영덕	이영숙	이영순	이영조	이종현	이철화	정승자	조미란	진양희	최대순	최창근	한석준
혜능스님	호정스님	황정분										

■ 온라인 후원자

강미진	강민수	강승진	강영수	강영옥	강원구	강윤희	강은숙	강태현	경현스님	고경철	고광철	고영을
고재관	공덕화	공부자	공선림	공필수	곽진오	구윤영	구일남	구창완	구춘자	권기원	권기환	권병희
권영호	권미선	권보영	권영순	권오환	권재영	권초자	권해숙	금선스님	김갑임	김건희	김경구	김경숙
김경순	김경자	김경화	김계운	김규선	김금희	김기숙	김기형	김기홍	김덕진	김도훈	김동석	김두희
김맹림	김명섭	김명희	김미숙	김미화	김민숙	김백수	김범근	김범호	김 병	김병숙	김봉석	김상애
김상옥	김석진	김선녀	김선보	김선익	김성숙	김성태	김수경	김숙자	김숙희	김순옥	김순자	김양근
김여찬	김영순	김영환	김영희	김예목	김예자	김옥상	김 옥	김용기	김원봉	김원성	김윤철	김윤철
김민숙	김민숙	김일숙	김자아	김재웅	김재환	김정락	김정민	김정선	김정애	김정자	김정현	김종원
김준호	김지성	김지연	김진호	김태연	김태준	김태현	김평환	김하규	김하규	김하표	김해균	김해린
김해원	김형근	김홍대	김 훈	나민경	나선덕	나영균	남건우	남궁중	남승연	남정스님	노도영	노은주
농륜스님	대원스님	덕선스님	덕순스님	덕원스님	덕현스님	도성스님	도영석	도일스님	동봉자	류종기	류충열	마서연
명신스님	모수스님	문미연	문순옥	문정애	문형규	민경석	민경성	민동숙	민부순	민정현	민형남	박광서
박광일	박귀환	박기태	박대성	박래길	박영란	박영심	박요선	박문식	박미경	박미원	박미자	박상조
박상현	박서진	박선미	박선우	박성희	박수안	박수자	박순남	박승규	박애경	박영섭	박영희	박용자
박우식	박운선	박원우	박필서	박유화	박유덕	박윤숙	박은하	박의진	박인선	박인자	박일순	박재철
박점옥	박정근	박정수	박정연	박정은	박재학	박종영	박종환	박주연	박준구	박창채	박창희	박태임
박현숙	박현순	박형숙	박희순	배민선	배석훈	배정화	배종현	배희섭	백명재	백 연	백인숙	백창호
법경스님	법철스님	변성자	변희수	본각스님	성덕스님	서경석	서동열	서명란	서선덕	서성진	서영석	서용칠
서정희	서준화	석우스님	석정금	선덕스님	선우근	성옥스님	성철완	성형모	세진스님	세침스님	소생영	손병송
손안식	손영옥	손원수	손정우	손창숙	손호열	손희정	송기남	송기섭	송명희	송병근	송연식	송은순
송진우	송희정	수안스님	신경희	신규환	신근환	신동희	신민교	신영주	신영애	신윤미	신현중	심정성
심창호	안동일	안애숙	안옥이	양성호	양은실	양인목	여영구	여영주	여정스님	여호연	염덕희	오윤정
오윤탁	오재환	오현이	옥지현	우석스님	우위남	월미희	월민스님	위미숙	유대희	유대희	유성자	유원순
유인산	유재복	유정오	유현진	유희달	육현옥	육혜수	윤봉노	윤옥자	윤인숙	윤재홍	윤정성	윤정열
윤진희	윤태란	윤태옥	윤현석	윤현숙	윤효숙	윤희영	은수복	은종국	이갑주	이경순	이경재	이경훈
이경희	이계자	이귀자	이규영	이근착	이기완	이기호	이길상	이낙형	이노은	이덕호	이무성	이미경
이미옥	이미자	이미현	이미혜	이미호	이병현	이보은	이상규	이상록	이상순	이상아	이상현	이상훈
이성민	이성표	이 숙	이순우	이순재	이순희	이승규	이승선	이영근	이영례	이영숙	이영순	이영만
이영옥	이영애	이옥자	이영석	이용재	이용숙	이우준	이운선	이유진	이윤정	이은실	이은칠	이을수
이인순	이일숙	이장윤	이창호	이재덕	이재숙	이정남	이정봉	이정배	이정삼	이종례	이종순	이종열
이종택	이주영	이지윤	이천기	이청도	이태형	이택희	이필자	이향란	이현복	이현자	이홍연	이화성
이희경	이희순	일원스님	임건영	임유숙	임재규	임정숙	임종하	임진우	임태희	임현옥	임혜경	제스님
장두현	장복순	장인옥	장창선	장철수	전금미	전범중	전복자	전부재	전상교	전선재	전은숙	전정숙
전정숙	전창훈	전호성	전경숙	전경숙	정경애	정덕스님	정두영	정말선	정병호	정민은	정선철	정선진
정성숙	정수혜	정 숙	정숙란	정순이	정순순	정완식	정영우	정옥화	정원호	정 은	정인익	정인순
정정민	정정애	정창덕	정재현	정태권	정태순	정태자	정명숙	정해경	제숙례	조광택	조길수	조덕현

조명숙	조미현	조사순	조상원	조석래	조성규	조용호	조우진	조은주	조이순	조정원	조진	조진현
조천복	조항민	지상스님	지성스님	지수영	지숙자	지현스님	지현우	진경숙	진선미	진승민	진화자	차미선
차봉주	차영수	차정애	차지열	채수연	채진연	채준수	천종근	최광봉	최기영	최명숙	최명옥	최명자
최문자	최 봉	최석재	최성순	최숙자	최순덕	최신옥	최은경	최임선	최재성	최정희	최종열	최주희
최준수	최현국	최현영	최혜숙	최혜정	최희용	탁명옥	탄호스님	한금자	한기정	한기형	한만임	한명선
한미례	한복기	한선숙	한영애	한종현	한탐스님	한현숙	행보스님	허경인	허미자	허인성	허정옥	허정일
허주스님	허한자	현각스님	현기옥	현병성	현우스님	현옥스님	현재옥	현조스님	현종스님	혜준스님	혜현스님	호진스님
홍승순	홍영관	화원스님	환풍스님	황광성	황기수	황득효	황선자	황수복	황 엽	황영희	황은희	황인수
황인숙	황지자	효신스님										

이로 후원자

강득규	강삼례	강석교	강수아	강순남	강승진	강연화	강영근	강용운	강인자	강태복	강현주	강형규
강호진	강호순	강호현	강희남	계수스님	고석재	고영남	고종일	곽문자	곽순점	곽정곤	권수연	권영순
권옥숙	권은영	권종열	김가수	김갑민	김갑순	김경자	김경희	김구원	김귀화	김기웅	김동규	김동숙
김동승	김동열	김동옥	김동환	김동철	김동환	김두웅	김득성	김명식	김명신	김명재	김명희	김문균
김문인	김문현	김미경	김미자	김미애	김미옥	김민지	김복민	김복희	김부열	김부임	김분선	김상일
김석규	김석인	김성규	김성수	김성천	김승열	김수선	김수임	김순옥	김순이	김순자	김순희	김승복
김애자	김연자	김영권	김영숙	김영순	김영이	김영인	김영자	김영철	김영태	김옥상	김용광	김용림
김용옥	김운선	김원순	김인자	김일성	김재원	김재은	김재홍	김정수	김정순	김정연	김정은	김정현
김정훈	김정희	김종경	김종희	김준상	김진근	김진성	김진수	김진옥	김진춘	김진홍	김찬희	김천수
김태훈	김필남	김현숙	김형균	김호식	김희령	남기민	남성호	남일우	남효경	노문운	노영희	노재철
노호순	대진스님	도선자	도옥스님	도점수	류해경	명권스님	모옥기	문경연	문대식	문도도	문성호	민경복
민문숙	민복스님	박광순	박금자	박금철	박기일	박대규	박동순	박연순	박연순	박문구	박미숙	박상설
박상조	박선광	박선옥	박성희	박수진	박숙이	박순남	박순애	박순자	박승남	박연하	박영자	박영희
박용자	박은숙	박인숙	박인순	박일심	박임순	박재현	박정록	박주원	박진연	박표순	박효식	방명근
배경미	배윤경	배태라	배현수	백동주	백우현	백은자	백희자	변옥례	보형스님	분연스님	서경애	서광수
서대복	서동주	서만숙	서민형	서수정	서정란	석구스님	성은영	성진순	성호철	손병화	손상호	손은주
손흥현	송광옥	송광호	송수혜	송영미	송원빈	송형스님	신경하	신동길	신영희	신안철	신숙춘	신인숙
신정순	신정숙	신필식	신현미	신영미	안경현	안명숙	안신래	안희자	안희자	안재경	안정식	안종도
안호숙	안호현	양석규	양숙자	양원종	염기준	염순옥	여순란	연제옥	오만용	오상숙	오순근	오옥순
오일록	오재순	윤문스님	우국자	우성우	원경스님	원명해	원일스님	유덕자	유미숙	유영남	유우순	유옥선
유정근	유정자	유진익	유준자	유향연	유현자	유화례	유희숙	윤관중	윤덕식	윤복란	윤순희	윤옥이
윤원숙	윤준근	이강호	이경순	이경애	이광순	이규상	이금옥	이길상	이대영	이명세	이명자	이영희
이원기	이복식	이보경	이보남	이복직	이보순	이상기	이석기	이선영	이성희	이성호	이숙희	이수명
이순자	이순희	이승원	이승혜	이인자	이영규	이영근	이영옥	이영자	이영주	이월용	이유상	이유주
이은주	이장희	이재보	이재숙	이재훈	이점순	이정근	이정우	이정훈	이종대	이종포	이주만	이준자
이진숙	이차숙	이창연	이천식	이춘자	이춘희	이치권	이태형	이한희	이현국	이호재	이홍래	이화자
이희동	이희숙	이희영	이희원	임귀주	임기영	임도림	임동주	임선인	임성희	임수옥	임영우	임영희
임재민	임정옥	임종순	임지용	임창진	임향일	장경주	장길자	장매숙	장선정	장순녀	장영자	장영희
장혜정	장희숙	장효진	전건재	전광원	전다혜	전우남	전상근	전종만	전화빈	전화순	장간란	장경인
정경화	정금순	정길용	정남복	정덕성	정덕스님	정명숙	정문기	정복순	정봉현	정성순	정서근	정선애
정성용	정승자	정승주	정영우	정영진	정영희	정오남	정옥여	정옥화	정우규	정원스님	정윤희	정재윤
정재은	정화자	조금옥	조명옥	조병탁	조소천	조성갑	조양례	조영자	조옥자	조은재	조자영	조정환



주건일	주연실	지기환	지옥례	지종식	진목스님	진성스님	진원스님	진정일	차선자	채보현	채석란	청하스님
초화윤	최범희	최병규	최병수	최복신	최부영	최석재	최성구	최수자	최순일	최영철	최요영	최용수
최원영	최익수	최점자	최정희	최철화	최준자	최필구	최희길	하경옥	하사병	한문숙	한선구	한정란
한효정	함정자	허영자	허위분	허진	허현수	현성스님	혜동스님	홍순득	홍순택	홍형기	황성욱	황이란
호민스님	홍현스님											

■ 환자 돕기 후원자

강미향	강승진	강현태	구민정	권경향	권길오	권혁준	김가옥	김경자	김구현	김금례	김덕희	김병구
김승연	김승희	김억권	김옥상	김창순	김창엽	김해옥	김현기	나덕형	남기서	노명서	도경스님	도원스님
민경옥	박경춘	박성미	박종남	박준성	박지연	박창용	박현신	배현수	범산스님	범운스님	변영실	서경민
성원스님	손정우	송기남	송정순	신동희	안칠환	양인종	영진스님	오정자	오현주	옥수정	옥지현	유정오
유정자	윤은숙	이광석	이기오	이문해	이범용	이상순	이연주	이영란	이위숙	이은목	이재경	임영숙
임영지	전지형	정상인	정진숙	정현옥	정희석	조현관	주혜린	최경복	최연순	최천룡	한담스님	해현스님
황병길	황충범											

■ 단체 후원자

(주)미창아이엔씨, (주)성암산업, 가림미용실, 가사아,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각공암, 각원사, 거산실업, 관음사, 구월사, 국회소나무모임, 극락사, 금륜사, 금륜정사, 금성사, 금재충, 금정사, 기림사, 길상사, 나래어린이집, 남양사, 내원정사, 노적사, 다운사찰전통장, 대각사, 대각선원, 대계사, 대우당약국, 덕불동문화, 덕향암, 동명사, 땅골광명사, 롬비니, 묘적사, 무신사, 미타사, 바이오세움, 반야사, 백련사, 백화암, 법림사, 법륜사, 법통사, 법성사, 보광사, 보광정사, 보덕사, 보림사, 보문사, 보현사, 보현정사, 보현회, 봉선사, 사랑발전소, 사천왕사, 삼양사, 삼각원, 석굴암, 석천암, 선수암, 선재사, 세영한의원, 송라사, 송암사, 신항사, 안정사, 약천사, 연곡사, 연우지과, 영물사, 영명사, 오동선원보현회, 오오명명, 용마간설조기, 용우사, 운문사, 위봉사, 이원성사, 이화불교사, 인과선원, 일념암, 자비사, 자비원, 자은사, 정토사, 조계종, 참나선원, 참여불교재가연대, 청솔차집, 청담윤희우, 칠봉사, 코끼리호프, 하나은행평창동지점, 학림사, 한국장기기증원, 한국조혈모세포은행, 한천사, 협동상회, 형성복지장학회, 화계사, 황룡사, 홍곡사, GS파워(주)

■ 자비의 쌀 후원자

일면스님, 보경스님, 양상호, 윤광인

■ 조계종신도등록 후원자

강현숙, 김완, 윤여창, 이화선, 전선화, 전영란, 최종석, 홍승순

■ 무기명 후원자 (신원파악이 어려운 후원자를 무기명후원자로 분류합니다)

강은주	강희정	경운사	곽두남	권경점	권명호	권보영	권혁단	금주스님	김경순	김동관	김명순	김병연
김복순	김부화	김상원	김성구	김성호	김영미	김영숙	김영애	김은정	김이숙	김민숙	김정민	김정순
김정자	김정중	김종선	김진현	김행순	김현수	김현숙	김현희	남영이	남해일	덕연화	마선주	박경자
박도민	박복순	박선희	박성준	박순홍	박영자	박현희	백승대	백승자	백운영	범왕정사	보현스님	불일스님
서동수	서소라	서윤혁	성정희	소진해	송보현공	송순이	신용숙	신경애	심재형	심정지	안제세	안희영
양창규	엑스케어커뮤	연화정토사	오정나	우혜진	유가진	윤미옥	윤영길	윤영자	이기현	이규자		
이금숙	이봉순	이순희	이연화	이영순	이영옥	이은경	이은남	이인숙	이정숙	이지연	이현순	이현주
이혜숙	임경화	임순희	임호신	장성배	저금통	정경화	정규관	정용진	정일상	정재민	정재홍	정진택
정철영	조성원	조정희	주광희	지장사	진양희	차경화	천도재후원금	천수사	철도산업개발			
최준환	충만교회	평안사	하재웅	허서연	현영화	홍상균	홍선주					



더욱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회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액, 원하시는 출금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바로 신청됩니다.

※ 후원금 중단 시에도 본회로 전화만 주시면 가능합니다.

지로 납부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번호 : 7623587



편리한 자동이체

예금주 :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매달 원하시는 일자에 일정 금액이 생명나눔의 후원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제도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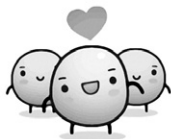
농 협 : 053-17-001346

국민은행 : 006-01-0770-038

신한은행 : 140-002-454039

우 체 국 : 010579-01-004019

하나은행 : 111-262551-00105



네이버 해피빈

클릭으로 생명나눔을...

네이버 해피빈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를 검색 후 클릭 한 번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12월 치료비지원 선정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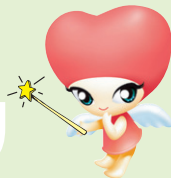
곽희자(여/51세)_급성골수성백혈병



“

두 아이와 행복했던
그 순간을 꿈꾸며...

”



올해 3월, 심한 감기몸살을 앓았던 곽희자 씨는 감기증상이 심해 동네 내과에 갔으나 즉시 종합병원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병원 검사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곽희자 씨는 백혈병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급성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입원하여 즉시 항암치료에 들어갔습니다.

힘들다고 말로만 들어보았던 항암치료를 1~3차 연속을 하고서야 관해상태가 유지되었지만 4차 항암치료를 앞두고 재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치료방법은 조혈모세포이식** 밖에 없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조혈모세포이식자가 나타나도 이식에 필요한 3천만원의 비용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식을 계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곽 씨에게는 무균실에 있는 엄마 얼굴을 매일 볼 수 없어 애가 타는 대학생 딸과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5년 전 이혼한 후 두 아이를 키워오며 노점상 일을 해 왔는데, 노점상이라는 것이 추울 때는 한없이 춥고, 더울 때는 숨이 턱에 찰 정도로 힘든 일인지라, 세상살이 한탄도 원망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때를 돌아켜보면 참으로 행복한 뉘뜨리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는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노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에서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두 아이들을 마주하는 행복한 순간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정부보조금 41만원은 월세 30만원을 제하고 나면 생활비로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 희자 씨는 늘 아이들에게 넉넉하게 용돈 한 번 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합니다. 게다가 발병 후에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희자 씨는 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며 오늘도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이라는 치료방법을 알고도 무균실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자 씨 가족에게 당신의 따뜻한 사랑과 힘을 모아주세요.

후원 계좌 농협 053-01-243778(생명나눔)

2010년 한해를 보내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단지 나 혼자만이 아닌, 수많은 인연으로 인해
이 자리,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인연을 설할 때,
갠지스강의 모래를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손으로 쥐어 그 손에 쥐 모래알갱이 수가 몇 개이겠는가?”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무수히 많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시 부처님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갠지스강의 모래알갱이의 숫자는 어떠하겠는가?”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손에 있는 모래도 헤아릴 수 없이 많거늘
어찌 갠지스강의 모래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어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조건 또한 이처럼 헤아릴 수 없으니
인연을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과의 인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연가운데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모두 더없이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며,
생명나눔으로 맺어진 아름다운 인연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해 봅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 면 합장